

화제의 책]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

[세계일보 2006-03-10 17:10:56]

어느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눈 덮인 겨울 산을 올라본 사람은 안다. 번잡함을 벗어난 적막한 산을 찾으면 정결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보이는 것이 눈뿐인 그곳에서는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상상만으로 여름의 푸름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형형색색 단풍 빛깔도 그려낼 수 있다.

형체가 가뭇없이 사라진 옛 절터에서의 느낌도 이런 것일까.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지누의 ‘절터, 그 아름다운 만행’에는 폐사지(廢寺址) 25곳의 역사와 저자의 사유가 담겨 있다. 불교나 미술에 관한 지식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심상을 담아낸 에세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이지누의 절터 톺아보기’ 시리즈 중 첫째로, 강원도·경상도 편이다. 앞으로 경기도·충청도·전라도편과 광주편도 출간된다.

강원 양양의 진전사 터와 선림원 터에서 시작된 저자의 구도 행각은 한반도의 동쪽 허리를 따라 예천의 개심사 터 등 경북 지역의 폐사지를 거쳐 경남 산청의 단속사 터와 지곡사 터 등으로 이어진다. 잃어버린 절터에서 저자는 죽비 소리를 듣고 부도와 탑에서 천년의 세월을 복원해 낸다. 사시사철 절터를 찾을 때마다 그는 고독의 그림자와 함께 거닐며 ‘지금 바로 여기’가 가장 아름답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불교와 도교, 부처와 노자를 넘나드는 이야기는 책 읽는 내내 철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함께 실린 사진 218점은 정겹고 글은 아름답다. 표현만 아름답다고 미문으로 명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글은 마음 수양으로 나이가 든 잔잔함이 들어 있어야 아름답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것이 보이지 않던가”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장을 찾아 사진기와 마음에 그 느낌을 담지 않았다면 공감을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저자의 폐사지 순례에는 여정이 있고, 사색과 철학이 있다. 그런 점에서 책은 아름다운 여행기이면서 또한 깊이 있는 철학 에세이다. “순례객의 발길이 끊어진 빈 절터의 당간 지주가 지닌 이미지는 기다림이다. 그는 사람들이 떠나 버린 동구 밖 느티나무와도 같은 것이다. 그들은 제 몸 속에 사무치도록 배어 있을 과거를 추억하며 묵묵할 뿐이다.”

그리하여 절터를 좋아하는 불교도의 심정으로 책을 대하지 않아도 좋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라면 여행기로, 꿈꾸는 자라면 철학적 사유로, 전통문화를 살펴보려는 이는 답사기로 바라보면 된다.

이보연 기자 byable@segye.com

© 세계일보 & 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